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부 개교 1주년

소망부(부장 : 임광식장로)가 9월 첫주로 개교 1주년을 맞고 있다. 우심화목사를 지도 교역자로 모시고 지난 1년간 꾸준한 발전을 해 온 소망부는 이날 개근자 시상과 아울러 초초한 잔치를 마련한다.

소망부는 성경암송, 찬송가경연대회등 자체 행사를 하며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의료를 실시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뿐 아니라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많은 수고를 하였다.

소망부에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말하는 김영준 집사는 소망부의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며 소망부 개교 1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초등부 찬양대 수련회 열다

지난 8월13일부터 1박2일간 우리교회 초등부(부장 박철훈장로)의 찬양대원들은 「새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주제로 최병호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수련회를 열었다. 찬양을 드리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하고 후반기 찬양곡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원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금요철야 기도회와 새벽예배에 참석한 대원들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며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나갔다.

유치부 찬송가 경연대회

유치부(부장 : 유운진 장로)는 오는 9월26일 반별 찬송가경연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지정곡과 자유곡을 각각 1곡씩 부르게 되는데 지정곡은 찬송가 276장, 자유곡은 담임교사의 자유선택에 맡긴다.

찬송가경연대회가 있게 되면 전화 심방을 하여 전화로 학생들과 연습하는 열성과 교사도 있지만 유치부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충분한 연습과 기도로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벌써 여름이 가고 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긴 옷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덧입혀
가을을 준비하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하기수련회 특강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I)

이종윤 목사

1.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우리는 소위 기독교 후기 시대에 살고 있다. 기독교에 도전해 오는 세력들이 대내외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1. 1789년 불란서 혁명

당시 기독교는 봉건신분 사회를 주도한 왕정과 권력에 아부 야합하므로 인하여 봉건 사회의 몰락과 더불어(교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사변적 신학만을 즐기던 당시 교회는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다가 반종교 운동을 부딪혔다.

* 교회와 소금과 빛의 구실을 못할 때 땅에 떨어져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버려진 골동품처럼 박물관의 진열장 속으로나 들어가야 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해 된다.

2. 1848년 공산당 선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받고 유무상통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따라 희생하며 정의를 감동처럼 공평을 하수처럼 쏟았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부익부 빈익빈의 현격한 차이와 더불어 일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제도와 위선에 매여 권위주의에 빠진 교회에는 더이상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다.

없이 버린 사랑과 공의를 찾기 위해 차라리 인본주의적 광등 사상이라 할 지라도 거짓된 교회 보다는 나은 것이라 생각한 노동자 계급에 속한 이들의 공산당 혁명은 당시로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 책임을 못다한 교회로 인해 기독교 이단과 같은 공산주의 운동이 생겨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문제야요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대명사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16세기 문예부흥운동,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이신론(Deism)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관개과 더불어 사라진다고 개설 뿐 더 이상 오늘의 역사를 주도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이론적 무신론자도 무심치만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께 정면도전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후 합리주의 운동, 역사 비평학에 의해 성경이 거부되고 마침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죽었다고 나-제는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서구의 교회는 심장에 화살을 맞은 사람마냥 위장거리기 시작했다.

4. 1976년 방콕 선언

1975년 나이로비에서 모인 WCC(세계교회협의회)대회에서는 불교, 힌두교, 유대교, 모슬렘교등의 대표단이 정식으로 초빙되었다. 이들은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탈 기독교를 선언하였으며 1991년 캔베라(오스트라리아)에서 모인 WCC 7차 총회에서는 혼합주의를 선언하는 진 풍경을 연출했다.

기독교인 스스로가 받고 있는 기독교 종말 예고 폭탄이 이미 여기 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5. 현대 기독교회는 평화에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인구폭발,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등, 현실 문제와 더불어 날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처럼 우리를 둘러 싸고 도전해 오고 있는 수 많은 것들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의미있는 공전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구원, 자신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자.

II. 회개와 갱신을 추구하면서

이 시대의 책임있는 교회로서 항도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은 먼저 겸손히 자기 갱신과 더불어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1. 종교개혁 정신의 재 발견

성경보다는 교인(교회제도)주의를, 은총보다는 물랑주의를, 믿음보다는 인본주의적 요소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주장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다.

2. 예언자와 사도정신의 재 발견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였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지도자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회개를 재촉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자기헌신은 물론 이 복음을 타인에게 증거하도록 요청하였다.

회개운동을 통한 갱신운동

복음전도를 통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 우리교회에 생동력 있게 솟아나야 한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역할 회복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뼈 아픈 상처다. 상호 불신, 증오, 갈라진 교파의 담벽을 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다음호에 계속)



창세기강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24-31)



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동물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며 어느 동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26~27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독립성, 독특한 우월성, 인간만이 갖는 위대한 성품들이 말씀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오는데 생명체(1절, 21절), 인간창조(27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1.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인류사와 고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인류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Leakey'족이 가장 오래된, 약 400만년전에 살았던 종족임을 말합니다. 'Usser'라는 감독은 성경을 아담부터 계산을 하니 BC4004년까지 올라가고 예수님 오신후 다시 2천년 그래서 인류역사를 6천년으로 만들어 놓고 6일이 지나 7일은 안식일이 되는 고로 이제 종말이 왔다는

세대주의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화석과 중동지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담이 어디 살았나 연구했는데 아담은 신석기시대에 BC 8천년경 살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인간문화가 창달된 것이 창세기4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인간에게 문화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전에 창조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더 큰 관심이고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몇천년에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인간이 얼마나 오래 전에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식작용을 하고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지(知)정(情)의(義)의 세 가지 작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둘째, 도덕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덕성은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도 하며 희생도 하고 남모르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야성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성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성을 상실해 버릴 때 아주 불행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영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하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금단의 열매 앞에서 인간은 복종과 책임, 자유와 책임의 시험을 받다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즉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동산에 하나님이 오셨을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느낌,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는 완전히 죽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떠나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지혜

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1:22) 결국 창세기3:19말씀처럼 인간의 영이 무너지므로 인하여 영이 거하는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간의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회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과 육을 함께 구원하시는데 복음의 영광은 이점에서 매우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은 영이 새로날 뿐만 아니라 고후5:17말씀처럼 새롭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27절) 남자와 여자는 둘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28:19이하) 전도 명령,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고, 구약에 창세기1장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이 나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만물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고 자유인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인간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실명제(實名制)

실로 금융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들은 남의 이름으로 숨겨둔 돈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좌충우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치된 돈을 인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액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니 무전유죄가 유전유죄로 바뀌는 대사건이다.

피땀 흘려 열심히 모은 깨끗한 돈이라면 가공의 이름으로 예금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 깨끗한 돈을 가명으로 세탁할 필요는 더욱 없다. 노출되어서는 안될, 드러나면 인격과 양심과 도덕성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어찌면 그 사람의 일생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이되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감춰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감출 곳이 없게 되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약으로 내건 금융실명제가 막상 실천되지 못해 왔던 것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검은돈과 이를 필요로 하는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경제 대국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일본도 이 연결고리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작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읍착마속의 결행을 했다는 것은 이를 환영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명구좌가 금융실명제 앞에서 그 실체가 날날이 드러나듯 심판날에 우리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고 인생의 생각과 욕망과 모든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앞에서 나 아닌 어떤 이름으로도 나의 삶을 고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나일뿐 남을 위한 변론도 나를 위한 변명도 있을 수 없는 오직 적나라한 내 인생 통장을 들고 나의 삶을 날날이 아뀔수 밖에 없는 그날에 한 달란트 받은자가 될까 두려운 것이다.

금융실명제 앞에 돈의 청탁(淸濁)이 드러나듯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들. 행여나 나의 믿음이 가명구좌는 아닌지.

성령님의 조명아래 나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앙실명제가 곧 실시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키리시탄의 고백

황 낙 호 집사(4교구)

직장에서 일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사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지역연구과정에 자원했다. 이과정은 1주일동안 학습하면서 일본의 역사, 의식, 문화, 지리, 상거래 등을 강의와 전문가 교류, VTR시청과 관심분야 연구로 진행되었다.

기독교인인 나로서는 유사한 동양인으로 한국에는 기독교가 활발한데, 일본에는 왜 신, 구교 합해도 1%도 채 못되는지 그 원

인을 알고 싶었다. 1주일 정도의 관심으로 일본의 기독교를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인은 대체로 내세관이 없으며, 도교와 불교의 혼합형태인 신도가 주류이고, 다신교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다. 동양신이 복을 주면 그곳에 빌고, 서양신도 복주면 그곳에도 빌고 종교의 가르침보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부여와 해석, 그리하여 모든 종교를 일본화시키는 듯했다.

드디어 1주일이 지나 각팀별 관심분야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데 '일본의 의식'이라는 주제 발표자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의식구조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읽어 나가다가 '일본의 종교'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멈췄다. "사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인의 종교를 연구해보니 일본인들의 종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본인은 대체로 다신교 즉 만물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책상, 기계, 건물 따라서 그곳에서 일할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곳의 신이 저를 벌할 것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은 매사에 조심하면서 성실하다고 배웠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2년전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 속은 다 똑같은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교인이 많이 나오는 데를 황금 어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밖에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울렸조. 지금 제가 다니는데는 그렇지 않는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얻은 유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술 두 번 먹을 걸 한 번 먹는 것입니다." 순간 쇠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같은 아절함을 느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 숨을 데가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다.

그럭저럭 연수원을 나오면서 그친구의 한마디 한마디는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했으면 대중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독교인이란 것이 창피스러웠다.

그후 직장에서의 나의 생활을 반성해 보았다. 교회에서는 잘 믿는것 같았는데, 어떻게 직장에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전투 자세가 되었다. 누가 나를 앞지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인사고과에서 뒤질까봐. 신앙양심보다는 직장에서의 생존철학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습관화되어 있었다.

권모술수가 몸에 배여있고, 말마다 진실성이 도무지 없었다.

나의 이익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자나 마찬가지로였다. 단지 술, 담배 하지않는 것과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그나마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었다. 지극히 형식적이었으며, 직장에서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하고 교회활동에 전념하면 된다고 생각해 오고 있지 않았던가.

전도는 엄두도 못내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그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히려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라고 하는 은근한 야유를 받아오고 있지 않았던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것은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것 일진대, 안일한 자세에 젖어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난 시간들을 깊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다.

영광스런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회생과 십자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보려고 했었던 자신을 회개하고, 직장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손해 볼것을 각오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도바울의 회심처럼 제대로 변하여 직장 복음화의 밑알이 되고자 한다.

주 : '키리시탄'이란 크리스찬을 일본에서 일컫는 말로써, 그리스도와 사탄사이 에 오락가락하는 자를 칭하고자 명명하였음.



순례자칼럼

장자의 죽음

김광신 장로

출애굽의 이스라엘백성들이 결정적인 전기를 맞은 것은 애굽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가는 사건 때문이었다. 죽는 문제도 중요하거나 더욱 강조된 것은 장자가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죽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권력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은 다른 모든것이 포기되고 단 한 가지 방법, 죽음의 문을 통과하므로 가나안을 들어갈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희생의 대상이 유독 먼저 낳은 맏아들에 국한되었으니 이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신앙을 사수하기 원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장자를 고집하고 산다. 신앙과 장자중 택일을 강요당하면 쉽사리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장자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강하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는가. 맏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장자는 죽이시게 하셨고 그것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맏아들을 아끼기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맏아들처럼 농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한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장자의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만 어리석고 우리는 영리하다는 발인가.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돌리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자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면 장자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장자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실명제의 출현으로 검은돈이 폭로되고 밝혀지듯이 무소유의 행복을 선택해보자.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다가 애굽은 송두리채 망하지 않았는가. 온갖 정성을 다해 쌓아놓았던 국력이 일시에 무너지는 비극을 애굽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나 개인도, 교회도, 더 크게는 우리나라도 장자의 죽음을 교훈으로 살아 강박한 마음을 풀고 천지와 그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목회자 동정

*이종운 목사는 오는 8월 23일부터 10일간 미국 씨아들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 이 목사는 씨아들을 세계본부로 찾아 흐레드 그레고리 월드컨선 세계 회장과 만나 선교에 대한 제반 문화를 협의케 된다. 또한 라성 한일교회(김의환 목사 시무)에서 8월 27일부터 3일간 집회인도를 한후 미주개혁 신학교에서 2일간(30-31일) "공관복음서" 강의를 한후 9월 3일 귀국 예정이다.

2차수학능력고사 11월 16일

지난 8월20일 입시생들의 1차 이다.

수학능력고사가 치뤄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만한 크고 깨끗한 그릇들이 우리교회에서 많은 만큼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했을 것으로 믿거니와 이제 2차 수학과목고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초청의 말씀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성경적 교회론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아홉분의 고전적 인물들을 동서양에서 택해 우리들 목회현장의 모델로 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열분의 국내외 석학들과 경건한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히 연구된 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계신 목회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높고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될 효율적인 강의를 진행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국의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며 기도후원을 바랍니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운(서울장로교회 목사)

세미나 안내

주제 :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 목회 모델 -

- 세미나기간: 1993년 9월 13일 - 11월 15일(10주간)
- 일 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장 소: 강남 YMCA(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전화: 547-0817
- 수강대상: 전국의 목회자
- 수업년한: 2년으로 하되 일년에 2학기(한학기는 10주 총 40주)
- 원서교부 및 접수일: 1993년 8월 16일 - 9월 13일
- 제출서류: 본원 소정양식의 원서, 증명사진 한장, 시무하는 교회의 주보 혹은 교역자 증명서
- 등록금: 한 학기(10주)에 만원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서울장로교회사무국) 135-010 강남구 논현동 165-18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2123 전화: 517-7651/5 팩스: 512-1225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Tel: 517-7651~5 Fax: 512-1225 (서울장로교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3.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